

전주대사습, 대통령상 복원 확정

문화부 정부시상 계획 발표 최소 1년만에 조기 복원

국내 최고 권위의 국악 경연대회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수여했던 대통령상 복원이 확정됐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의 정부시상 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올해 판소리명창부 장원에 대통령상을 시상할 수 있게 됐으며,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나서게 됐다.

이번 대통령상 복원은 지난 2016년 대사습보존회 이사의 심사비리와 보존회 내부다툼 등 일련의 사태 등으로 취소됐던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이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와 전주시 등의 노력으로 인해 최소 1년 만에 조기 복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명성 회복에 나선 조직위는 2016년 전주대사습놀이 축제분야와 2017년 전주문화재야행 기획·연출한 이왕수 감독을 영입해 전국대회 기획공연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직위원회에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국내 최고 권위의 국악 경연대회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수여했던 대통령상 복원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현장.

참여되 조직위원회를 보존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보존회의 노하우는 활용하되 조직위원회 내에서 보존회와 외부전문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대통령상이 복원으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국내 국악 분야 최고권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회의 성공개최와 시민과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소리문화전당, 27일까지 '헬로 루키스타' 뮤지션 모집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한여름 밤의 옥상 콘서트에 함께할 '헬로 루키스타' 뮤지션을 27일까지 모집한다.

'헬로 루키스타'는 음악활동이 쉽지 않은 신진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전당의 기획·제작 시스템과 가능성 있는 신진 뮤지션들이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랑과 친구' '추억과 여행' '기억과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구성과 공간 연출을 통해 단편소설 같은 감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8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의 시리즈로 선보인다. 특히 8월과 9월은 소소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옥상, 달, 그리고 노래'

에 담아 옥상에서의 힐링과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슈퍼루키에 도전할 뮤지션은 솔로 또는 그룹 모두 가능하며, 야외 및 소극장 무대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장르는 대중·인디·퓨전음악에 한한다.

신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sri21.c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신청서와 함께 공연 아이디어와 라이브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선정된 뮤지션에게는 소정의 작품개발비(300만원이내, 작품에 따라 차등 지급)와 연출·제작 지원·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정해은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뮤지컬 '튼튼이와 세균킹의 대결'

국립전주박물관은 올해 야간개장의 첫 번째 문화행사로 어린이 뮤지컬 '튼튼이와 세균킹의 대결'을 선보인다.

21일 오후 6시 전주박물관 강당에서 공연되는 '튼튼이와 세균킹의 대결'은 어린이의 시각에 맞춘 춤과 노래, 이야기를 통해 위생에 대한 감각심을 심어 줄 예정이다.

공연은 '올바른 손 씻기 습관'과 '올바른 양치질 방법', '무섭지 않은 예방주사'라는 세 가지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이에 다양한 시각적 볼거리를 더해 재미를 선사한다.

극은 주인공 튼튼이의 친구들이 세균맨이 준 음식을 먹고 세균에 감염돼 세균나라로 잡혀가게 되자, 튼튼이가 친구들을 구하고자 세균나라로 찾아가서 퀴즈대결을 펼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공기오염 등으로 인해 위생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공연이 문화 교육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공연은 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프로젝트마켓, 공식 포스터 공개

제10회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주프로젝트마켓(JPM)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올해 포스터는 전주프로젝트마켓 10주년을 맞아 전주프로젝트마켓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 디자인을 내세웠다.

기존 포스터가 영화제 정체성에 따라 주조색인 파란색으로 메인 기호·로고·회차를 담는데 그쳤다면, 올해는 선 그래픽을 활용해 함축적이고 가시적으로 전주프로젝트마켓의 '역사'와 '방향성'을 표현했다.

포스터 내 선들은 전주프로젝트마켓을 통해 소개된 각각의 프로젝트를 상징한다. 선에 다채로운 색감을 부여함으로써 전주프로젝트마켓이 발굴해온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담아냈다. 더불어 선에 가미된 기울기는 프로젝트에 내재된 잠재력이 전주프로젝트마켓의 지원을 통해 발전해가는 과정을 비유한 것으로, 전주프로젝트마켓의 역할과 성과를 의미한다.

이번 포스터는 색깔이 다채로운 컬러의 선이 연속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형상을 통해 전주프로젝트마켓이 쌓아온 10년의 역사,



미래의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올해는 10주년 기념 로고를 제작하고, 기존 로고 컬러에도 변화를 주었다. 10주년 기념 로고는 전주프로젝트마켓 로고와 숫자 10을 조합해 디자인했다. 로고타임을 이미지화하여 행사명과 로고가 중복 표기 되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형태에 안정감을 주었다.

기존 영화제 로고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메인과 서브 컬러를 채택하고, 두 컬러의 그라데이션을 통해 유연함을 더했다. 메인 컬러는 활력과 특별함을, 서브 컬러는 예술성을 상징하며 프로젝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라데이션 비전을 통해 드러냈다.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라마다 전주호텔에서 열리는 전주프로젝트마켓은 대표 프로그램인 '전주시네마랜드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 에디션' 그리고 세미나 'AFTER CINEMA: 영화 완성, 그 '다음'을 생각하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조용안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우리가락'

전북도립국악원의 목요국악예술무대는 '조용안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우리가락'으로 꾸며진다.

1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선 조용안 관현악단이 곡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며 국악의 이해를 돕는다.

공연은 삶을 관통하는 노래라 일컬어지는 민요부터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언제나 제멋을 드러내는 판소리, 감각적이며 호소력 있는 의식으로 내재된 위로를 선사하는 씻김굿까지, 다양한 곡들을 '국악'이라는 유기적 관계로 풀어낸다.

무대의 첫 막은 맑고 경쾌하고 분명한 창법이 특징인 경기민요 '노래가락'으로 연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 무당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 곡은 조선 말엽이던 고종 때, 대궐 출입이 잦은 무당들이 임금에게 들려주기 위해 여기에 고상한 시조 시를 얹어 부르게 되면서 민요로써 널리 유행하게 된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청부터령'으로, 서울의 곳곳에서 무당이 부르던 무가였던

것이 훗날 경기민요 소리꾼들에 의해 통속민요로 변했다.

또 전라도 잡가의 하나인 남도민요 '화초사거리'는 보렴(보시엄불의 준말) 다음에 이어서 부르는 노래. 화초의 이름과 특징이 나열되기 때문에 전자를 김영불, 후자를 화초엄불이라고 한다. 노랫말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길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청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눈대목인 춘향가 중 이별가 '갈까부다'도 선보인다. 이 대목은 이도령과 이별을 맞이한 춘향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공연은 우리 전통예술의 삶과 죽음을 다룬 '진도 씻김굿'으로 마무리한다. 이는 경상도 지방의 오구굿이나 서울의 지도구굿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굿. 호소력 있는 풀이와 위로를 통해 우리 전통예술의 백미를 느낄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서 대금 김건형, 아쟁 황승주, 가야금 조보연, 피리 조승태, 거문고 최소영, 해금 조진용, 장구 장인선 단원이 협연한다.

국악원 관계자는 "관현악단장 조용안이 들려주는 국악 이야기와 그가 짚어주는 감상 포인트를 따라가다 보면 '감상'을 넘어 국악에 '공감' 하고 있는 나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